

##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더구나 그것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일은 더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을 깊이 분석하는 일은 동양 사상, 특히 한국 사상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짧은 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의 영향을 극복함으로써, 온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샤머니즘(Shamanism)과 샤머니즘의 영향

가장 긴 시간 동안 깊이 뿌리 내린 전통적 요소는 역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조상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 오기 전부터 깊이 뿌리 내린 무교(巫敎)는 다른 지역의 샤머니즘과 비슷하다. 무당(shaman)이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화(禍)나 액(厄)을 물리치고 복(福)이 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교는 본래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죽은 후의 상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교적 사유 방식에 의하면 종교적 의식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므로, 매우 조심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의식을 행하는 시간 및 장소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 및 장소를 구별하고, 일상과는 다른 몸과 마음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점, 의식을 위해 정성과 상당한 제화를 드려야 소기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형성주의적 사유방식이 무교에 의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하게 성경적 개념에 유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불교나 유교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되기 쉽다. 우리의 기복(祈福)적 정향성은 이미 이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강한 기복종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쉽다. 사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심각한 문제이다.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외치는 헌신과 자기 변혁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철저한 자기 변혁이다. 복 받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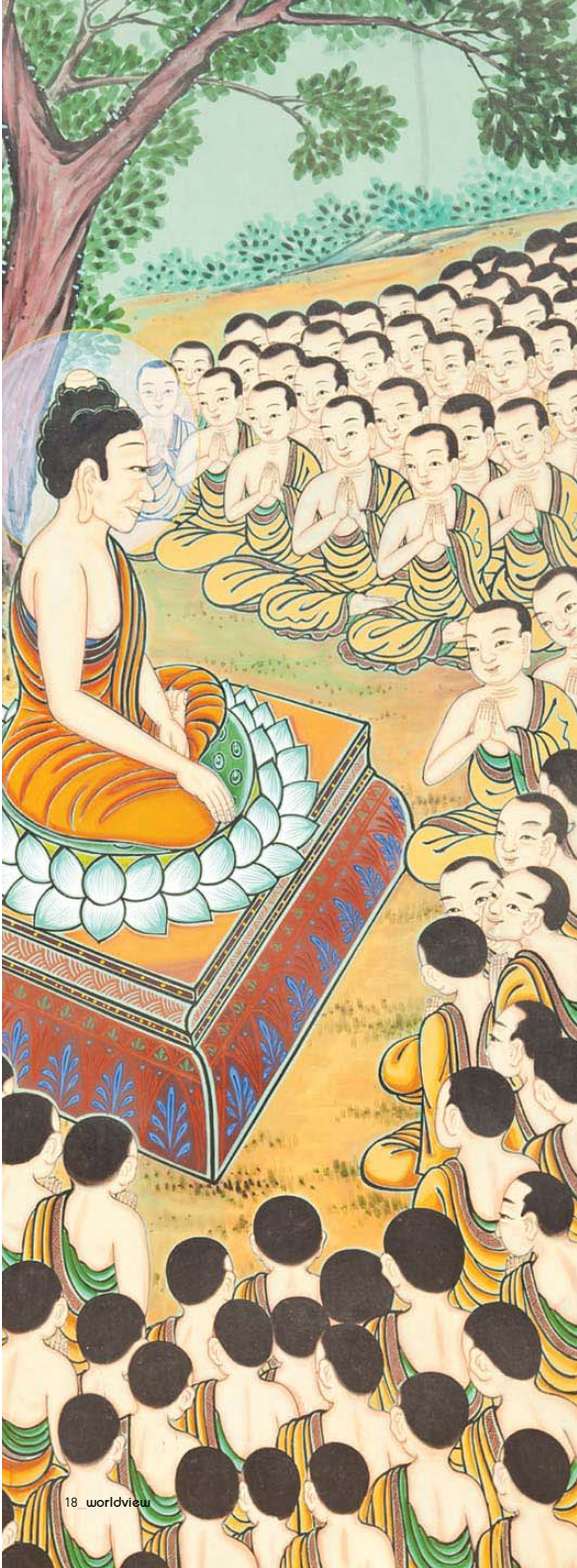
그렇게 온전히 변화하여 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는 정성을 다하나, 일상생활은 조금 느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성속(聖俗) 이원론은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영육 이원론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수도원 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한국의 성속 이원론은 샤머니즘과 그 영향 하에 있는 불교와 유교의 형식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이 목욕제재하고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여 의식(式)에 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일상의 삶과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듯하다.

그러므로 기복주의적 성향과 성속의 구별은 무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해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





## 2. 불교적 세계관과 그 영향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소위 고등 종교(the Great Religions)는 불교(佛敎)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와 존재 자체의 고난인 소위 본고(本苦)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윤회(輪回)에서 벗어난 존재, 즉 깨달은 자(覺者)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解脫) 또는 열반(涅槃, nirvana)에 이른다고 한다. 불교는 각자가 근본적으로 깨달은 자인 부처(Buddha)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불교의 최고 원리인 중도(中道)를 깨달아 모든 존재의 여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고 번뇌가 곧 깨달음(生死即涅槃, 煩惱即菩提) 생사와 열반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기도 한다. 즉,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一體唯心造)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해탈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르고, 사실 그것이 실재하는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도 초극(超克)한 상태가 열반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현실에서 시작하여 고난으로 가득찬 현실을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종교이다. 기독교인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1) 이 세상의 삶은 적극적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죽은 뒤의 세계만이 바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덕을 쌓아야 죽은 후에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교를 비롯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주장으로 기독교인들도 동화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3) 불교, 특히 선불교(禪佛敎)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으며, 서구에도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상 기도가 제시하는 관상 방법과 선(禪)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

라. (4) 의식을 행하며 정성껏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결국 무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적 기복주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5) 전생(全生)과 후생(後生)을 말하는 불교적 윤회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언어생활에도 침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기독교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3. 유교와 그 영향력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儒學)은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학이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마음(심령)과 몸(사공)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리에 일치하여 조화 있게 활동되는 것”이다(田愚, 『유학(儒學)』, 1912). 즉, 유학은 만물의 질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참 사람됨을 실현하는 것으로, 노력하면 이런 것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가장 고상한 형태의 유학은 만물의 이치에 대한 파악과 참된 인간됨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유학도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過信)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면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잘못된 형태의 유학”은 (1)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허례허식(虛禮虛飾)에 치우치고, (2) 조상 제사에 무교적 개념을 접목하여 조상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본래 유교적 제사의 정신에서 벗어나며, (3)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상(班常, 양반과 상민)의 구별, 좀 나은 경우에는 군자(君子)와 군자가 아닌 범용(凡庸)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아들·딸의 지나친 구별이나 근자에는 나이에 따른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독교인들도 오랫동안 이러한 세계관 안에 있었으므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젖어들기 쉽다. 그리하여 (1) 우리의 삶이나 교회 행사에서도 허례허식이 나타날 수 있다. 헌금에 이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유교적 축복의 기독교적 변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이든 사람은 성경의 원리도 무시해도 되는 듯한 사고방식은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주변에는 여러 사상의 혼합된 형태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방식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세계관들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애써야 한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